

지역 중기·소상공인 신종코로나 피해 속출

기아차 생산중단에 평동산단 협력업체 납품물량 줄어 어려움 손님 발길 끊긴 키즈카페·음식점 등 소상공인 문의도 이어져 광주·전남 17건 피해 접수...중기청·광은 등 적극 지원 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타격을 입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사례가 속속 접수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하기까지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후 피해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당국도 피해 발생 시 적극적인 구제와 지원을 위해 상담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11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사례와 애로사항을 접수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각각 7건씩 총 14건으로 파악됐다. 광주은행에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한 업체도 3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피해사례를 접수한 평동산단 기아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는 기아차 광주공장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납품 물량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다고 상담을 신청했다.

또 다른 광주의 한 IT기업은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예정이었으나 중국에서의 수입이 전면 중단돼 판매는 물론 매출 자체를 올리지 못하면서 회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수출기업이 많은 전남에서도 최근 중소기업들의 피해사례 접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중구에 자회사를 둔 한 중소기업은 중국서 생산하던 김 양식 망을 국내로 들여오지 못해 전전공공하고 있다.

이밖에 졸업식과 입학식이 취소·연기되

면서 타격을 입은 꽃가게를 비롯, 외식업체와 여행업체도 각종 모임·예약이 취소됨에 따라 심각한 매출감소를 호소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추세다.

광주은행에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한 업체 3곳 역시 신종 코로나 여파로 발길이 끊긴 키즈카페와 수영장 등 어린이 관련 업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수출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나뉘어 있던 신종 코로나 피해사례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관계 당국도 대처하고 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이날 신종 코로나와 관련, '피해애로상담센터'(062-360-9205)를 구축했다.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분류했던 피해사례 역시 통합해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권도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은행은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최대 1.3%포인트 우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 경영자금을 투입했다.

농협 상호금융도 오는 6월 30일까지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해 최고 1%포인트 이내, 농업인 최대 1.7%포인트까지 금리를 감면하고, 이자납입 유예, 연체이자 감면 등을 진행 중이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자동차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특별보증을 신종 코로나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으로 확대 운영한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이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다"며 "앞으로 피해상담을 하는 기업과 상인들의 문의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피해를 입을 경우 적극적으로 상담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날 소상공인 10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종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7.9%가 신종코로나 사태 이후 사업장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23.12 (+22.05)	금리(국고채 3년) 1.30 (0.00)
▲ 코스닥 682.34 (+6.27)	↓ 환율(USD) 1181.60 (-5.50)

가인이는 잎새주 이여라 보해양조, 송가인 효과 '톡톡'

잎새주 1월 판매량 20% 증가 사진 부착 봄 한정판 추가 생산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잎새주 모델로 송가인을 영입한 후 매출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송가인 사진이 부착된 한정판 제품 인기가 높다는 점에서 보해양조는 봄 한정판 제품을 추가 생산하기로 했다.

11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보해는 창립 7주년을 맞아 올해 '국인가수' 송가인을 잎새주 모델로 전격 발탁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송가인이 잎새주 모델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송가인'과 '잎새주', '보해양조'가 올라오는 등 관심이 높았다.

여기에 광주·전남지역을 넘어 수도권과 영남지역 등 전국 각지에서도 '송가인 소주'를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소비자들의 문의도 이어졌다는 게 보해양조 측의 설명이다.

실제 '송가인 소주' 잎새주에 대한 관심은 곧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송가인이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부착된 '한정판'에 대한 관심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보해양조 잎새주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송가인을 모델로 선정된 이후 특별한 캠페인이나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판매량이 늘었다.

국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다양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어 전국에서 팬들이 잎



새주를 찾고 소비함에 따라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보해양조는 송가인 팬과 잎새주를 찾아준 소비자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새로운 한정판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추가로 선보일 제품은 봄을 상징하는 초록색과 분홍빛 의상을 입은 송가인 사진이 상자포장 겉면에 부착될 예정이다.

박찬송 보해 홍보팀장은 "잎새주 모델로 송가인씨를 선정한 직후 전국적으로 보해양조와 잎새주가 큰 관심을 받으며 매출도 증가했다"며 "앞으로 광주·전남 지역민과 송가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잎새주를 찾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차, 전기차 구매 프로그램 '스위치 온' 출시

기아자동차는 전기차 구매부터 차량 충전, 중고차 매각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구매 프로그램 '스위치 온(Switch On)'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스위치 온'은 2월 한 달간 기아차 니로 EV와 쏘울 부스터EV를 출고하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저금리 할부 ▲충전비 지원 ▲중고차 가격 보장 등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달 현대카드 M 계열 카드로 기아차 니로EV, 쏘울 부스터EV를 할부로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할부 기간(12·24·36개월)에 따라 정상 할부 금리(4.0%) 대비 1.1~2.2%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전기차 스마트 할부 특별 금리'를 실시한다.

또 멤버십 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을 합친 '기아 레드 멤버십 전기차 신용카드'를 통해 전기차를 충전할 때 전국 어디서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전기차 신용카드로 기아차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1.5% M 포인트 적립 ▲세이브-오토 이용 및 해당 카드로 200만원 이상 결제 시 2만 레드포인트 추가 적립 ▲전국 가맹점 0.5% M포인트 적립 ▲기아 레드멤버십 제휴처 0.5% 레드포인트 추가 적립 등 혜택도 제공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벨런타인데이 어떤 선물 고를까 11일 (주)광주신세계 남성리매장 직원들이 '벨런타인데이'(14일)를 앞두고 선물용 정장을 선보이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명절 뒤 소비 위축...광주 채소류·과일가격 큰 폭 하락

이마트, 양돈농가 돕기 할인행사
설 이후 소비위축 등의 영향으로 광주 지역 주요 채소류와 과일, 돼지고기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 본부가 11일 발표한 광주지역 농산물 가격 정보에 따르면 광주 양돈시장 소매가격을 2주 전과 비교할 때, 무(개당 1.6~

2.0kg)는 3000원에서 2000원으로 33% 하락했다. 배추(포기당 3.0~4.0kg)는 4500원에서 4000원으로 11% 떨어졌다. 상추(100g)는 900원에서 600원으로 33%, 오이(10개)는 1만2000원에서 1만원으로 16% 각각 하락했다.

풋고추(100g)는 8%(1200원→1100원), 딸기(100g)는 40%(2200원→1300원), 방울토마토(1kg)는 7%

(6500원~6000원) 내림세를 보였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는 "채소류는 명절 이후 관례적인 소비위축 등으로 수요가 감소해 대부분 품목이 내림세"라며 "과일류 중 딸기와 방울토마토 등은 주 출하 시기에 공급물량 증가와 소비문화로 내림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채소류 출하량 감소 폭은 크지 않고 학교가 방학이어서 급식용

납품수요 감소 등 영향으로 내림세는 지속할 것"이라며 "신종코로나 확산 여부도 농산물 가격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7곳 등 전국 이마트는 아프리카 카뎀지열병과 신종 코로나 파동으로 위기를 맞은 양돈농가를 돕기 위해 돼지고기 30% 할인행사를 오는 14~16일 진행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1월 20일~2월 6일 평균 돼지고기 도매가격(탕박 1kg)은 2906원으로, 2011년 이래 최저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도매가 3505원보다 17% 떨어진 가격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금호타이어, 현대·기아차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금호타이어가 'iF 디자인 어워드 2020'에서 운송기기 부문 2개 제품이 본상을 수상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각각 2개 차량이 디자인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국제포럼디자인에서 주관하는 국제 디자인상으로, 디자인 분야 아카데미상이자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불린다.

올해 금호타이어는 '마제스티(Majesty) 9 솔루스 TA91'와 '윈터크래프트(WinterCraft) Wi51' 등 2개 제품이 본상을 수상했다.

'마제스티 9'는 마제스티솔루스의 후속

제품으로 기존 제품보다 승차감과 정숙성을 강화시킨 고성능 프리미엄 제품이다.

'윈터크래프트 Wi51'는 눈길과 결빙 도로에서 견인력과 제동 성능을 개선한 유럽형 겨울용 타이어다.

또 기아차는 제품 디자인 분야 수송 디자인 부문에서 '엑시드'와 전기차 콘셉트카 '이매진 바이 기아'가 본상을 수상했다.

11년 연속 iF 디자인상을 받는 등 글로벌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현대차도 '쏘나타 센슈어스', 전기차 콘셉트카 '45'가 각각 본상을 수상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